

복식의 의미확장연구
- 소설텍스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tension Meaning of Expressed Clothing in Novel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의류학전공
유지현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Ji-hun Yu

(2002. 5. 1 접수)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at how the meaning of clothes and clothing behavior were extended, and to examine that they produce what kinds of meaning in the specific contexts in a novel, the Honpul.

The Frame of meaning analysis proposed by Beaugrande, Dressler, and Damesteter was used as an analyzing method.

The 100 texts were collected for analysis from the Honpul volume 1 to 10.

Psychological meanings were categorized to sensitivity meaning, disposition meaning and incantation meaning. Those had not only a basic meaning which could be gotten from the practical clothing but also second and third extended meanings.

The point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new method and possibility for analyzing the code of costume culture by the extended meanings in novels.

Key words: Novel Text, Honpul, specific context, extended meanings, psychological meaning; 소설텍스트, 혼불, 특정상황, 확장 의미, 심리적 의미.

I. 서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복식 연구는 자연과학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그리고 예술계와의 학제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유행의 모드나 복식형태의 추이 변천을 해석하는 복식의 표면적인 연구에서 인간의 심층에 잠재된 의미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복식이 나타내는 의미는 실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어떤 관점에서의 복식은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는 실용적 의미가 중시되지만 이러한 기능적인 면만으로

복식의 모든 의미해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능적인 면만 있다면 의복의 디자인이 것처럼 대체로 필요는 없을 것이다. 横川公子(1992, 1998)는 복식의 이미지는 현실생활을 떠난 회화나 조각 혹은 시나 문학에서 표현된 의복의 인상에서도 얻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복식은 인간의 심리를 반영하는 하나의 의미체라 볼 수 있다.

복식표현의 심리적 의미 분석은 등장인물의 성격, 감정, 욕구에 관한 많은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복식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는 실물의 복식으로부터 색상, 형태, 악세

서리, 문양, 착용습관, 행동 등과 같은 물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시사하는 내면의 정신적 의미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설 텍스트에서는 작가의 의도가 복식표현의 전·후에 제시되므로 보다 정확한 의미분석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동일한 복식을 입었다더라도 착용자의 행동 묘사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인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식을 하나의 의미체로 간주하여 소설에 표현된 복식이 특정상황에서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하는 의미확장 과정과, 텍스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의류학과 언어학의 학제적 연구를 제시함에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Beaugrande & Dressler의 텍스트 분석 기준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미분석 모형에 따라 작가-텍스트-독자 사이의 의사소통관계와 텍스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한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범위는 최명희의 대하소설『혼불』1권부터 10권에 나타난 복식 관련 텍스트 중, 특별히 복식의 심리적 의미 분석과 깊은 관련이 있는 100여가지 문단만을 선정하였으며 그중 10여 개만을 본 고의 분석 텍스트로 제시하였다. 소설『혼불』을 본 연구의 텍스트로 설정한 이유는 첫째, 본 소설은 다른 문학 작품에 비해 시간, 공간, 등장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둘째는 본 소설 속의 복식은 복식 그 자체를 위한 외형적·물질적인 복식뿐만 아니라 내면적·정신적인 복식이라 할만큼 섬세하게 표현되어 여러 차례 수상¹⁾한 바 있는 인증된 소설이며, 끝으로 본 소설은 작가가 한국인으로서 작가-텍스트-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고려할 때 독자와 동일한 문화권을 공유한다는 점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의미영역분류는 복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가 확장됨을 가정하고, 의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심리적 원인에 초점을 둔 심리적 의미분석으로 한정하였다.

1) 제11회 단재문학상, 1997년도 세종문화상, 1998년도 여성동아 대상, 호암상 등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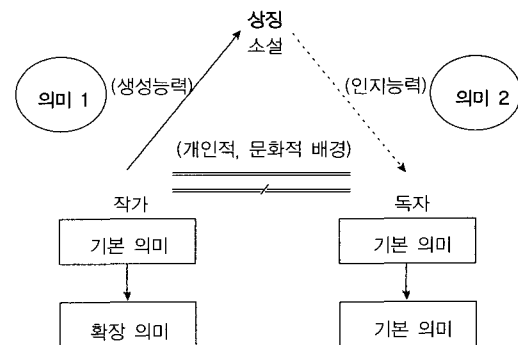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1. 텍스트 분석 기준 및 의미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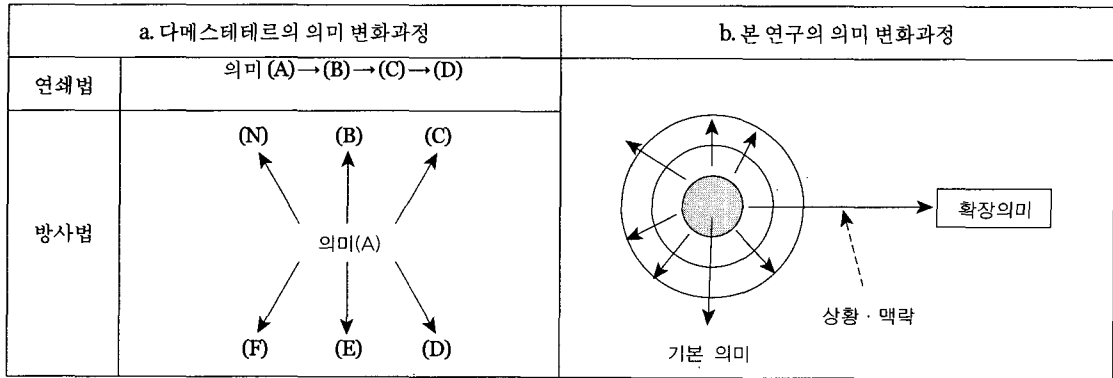
Beaugrande & Dressler(1981)는 인간의 의사소통단위는 문장이 아니라 '텍스트'라 보고, 텍스트는 통화자가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인지적 구성체로서 맥락이 중요시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수용자의 머리속에 비축된 경험 및 사전 지식과의 상호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때 관찰되고 이해된 현실을 모델화한 하나의 이미지가 수용자에게 실현된다고 하였다. 결국 텍스트의 이해는 인간사적 요소인 시간, 장소, 동기 그리고 화자와 청자의 능력이 총동원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결속구조, 의도성, 용인성, 정보성, 상황성,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이들간의 결속성을 텍스트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텍스트에는 문법성이나 형식의 적격성 보다는 용인성과 상황성 그리고 발화자의 의도성이 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즉, 텍스트 상에서 지식을 사용하고 전달하는 데에는 논리적 증명보다 인간의 사유과정이 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의미 역시 한 가지 고정 의미로서 만족되지 않고 맥락에 따라서 변화를 갖는다. 이러한 현상은 복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많은 복식표현들은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잠재적 의미를 지니지만 특정 텍스트 상에서는 거기에 적당한 특정 의미(확



[그림 1] 소설 텍스트의 의미분석 모형



[그림 2] 의미확장 모형

장 의미)만을 지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름 '심리적 의미'는 작가가 등장인물 에 대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나 상태 또는 현상을 나타낸다. 곧, 복식이나 복식 행동이 지시 하는 의미가 텍스트의 전·후 맥락에 의해 등장인물의 감정, 성격, 주술적 바렘 등과 같은 심리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소설 텍스트의 의사 소통 과정과 의미확장 모형은 다음과 같다.

2. 소설 텍스트의 의미분석 모형

[그림 1]에서 작가는 의미 생성능력에 따라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1을 소설 텍스트 속에 글로 표현한다. 그리고 독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능력을 발휘하여 소설(텍스트)로부터 의미2를 인지한다. 이때, 작가와 독자가 동일한 문화권 속에 있으며, 배경 지식이나 세상일에 관한 지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작가와 독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사소통은 성공적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의미1과 의미2가 존재하며, 이것들은 텍스트의 전·후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Darmesteter(1946)는 의미 변화의 과정을 연쇄법

(Enchainment)과 방사법(Rayonnement)으로 [그림 2a]와 같이 나누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림 2b]에서와 같이 두 가지 의미 변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위의 [그림 2b]에서 기본의미는 방사적으로 확장되지만 각각의 확장은 상황·맥락에 따라 연쇄적 또는 비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선행 연구로는 문학 작품을 분석한 복식 연구와 언어 이론을 적용한 복식 연구가 있다. 먼저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한 복식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출세(1990)는 상고 서사 문학에 나타난 통과 의례와 고전 소설에 나타난 통과 의례를 출생 의례, 혼인 의례, 상례와 장례의 순차적 구조와 고전 소설의 사후담 등 각 의례와 관련된 복식을 논의하였다. 홍성범(1992)은 염상섭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된 일제 식민기의 복식 모드를 밝히고, 작품에 나타난 여성상을 복식 모드와 사회적 변동 및 그 시대를 영위했던 여성들의 사상성, 여성 의식, 위치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정현숙(1992)은 셰익스피어의 주요 작품에 나타난 복식을 역할 이론을 근거로 분석하여 복식의 구체적인 역할을 밝혔고, 정원윤(1993)은 춘향전에 나타난 인물의 복식 형태를 그 시대의 회화와 비교 검토하여, 작품에 나타난 복식 재료를 규명하고, 당시 사람들의 색채 감정, 인물의 자태 묘사를 통한 복식미를 규명하였다. 이유경(1993)은 소설에 나타난 복식을 상징성 이론을 적용하

2) 여기서 '텍스트의 맥락 요소'는 소설의 행위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장소 그리고 등장인물의 생활양식인 종교적, 도덕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인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여 분석하였고, 김희선(1994)은 펄벅(Pearl S. Buck) 소설에 나타난 복식을 정체성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언어 이론을 적용한 복식 연구는 R. Barthes에 의해 시작되었다. Barthes(1967)는 복식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규정하고, Saussure의 일반 언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잡지에 묘사된 문자의상의 체계에 대한 의미 연구를 행하여 복식 연구에 언어 이론을 최초로 적용하였다. 즉, 이 연구는 문자의상의 의미화 관계에서, 의상과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등치 관계로 보고 이를 기표와 기의의 관계로 설명하여 복식학과 언어학의 학제적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Petr Bogatyrev(1981)는 복식이 물질과 기호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기호로서 표현될 때가 많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Lurie(1986)는 의복을 신호 체계로 보고 이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몇몇 종류의 정보와 그것에 작용하는 규칙들을 복식사와 의복에 대한 심리학 분야 자료에 언어학 이론을 적용하였다. 즉, 의복을 연령, 시간, 장소, 지위, 성별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체로 보고 이를 언어의 기능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한명숙(1987)은 한국 복식 현상에 나타난 복식의 의미와 구조를 Saussure의 구조 언어학, Ogden & Richards의 심리주의 의미론 및 Leech의 의미론을 적용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복식은 내적 심리가 표현적·외형적 형태를 나타냄으로서 그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것으로 언어와 같이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 전달체임을 규명하였다. 이 밖에 나수임(1995), 김미영(2000), 이경화(2001)는 Barthes, Leiss, Klins & Jhally의 언어 및 광고 기호 이론 및 Simon Champman의 분석틀을 수정·보완하여 잡지에 나타난 의류 광고를 분석하였다. 윤점순(1997)은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라는 구조주의 이론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의 파라다임 속에서 서양의 중세 복식과 근세 복식을 정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해 볼 때, 한국문학 작품을 분석한 연구로는 고전 소설에 나타난 통과 의례의 복식 분석과 일제시대의 복식모드 분석, 복식의 형태, 복식 재료, 색채 등 복식미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서양문학 작품을 분석한 연구로는 소설 속의

서의 복식의 역할·상징성·정체성의 규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언어 이론을 적용한 복식의 연구는 잡지에 묘사된 문자의상 분석, 복식사 및 복식에 관련된 자료의 분석, 실제 복식 현상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소설에 묘사된 복식을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복식이 소설 텍스트 내에서 어떠한 상황과 맥락의 영향을 받으며, 어떠한 확장(특수)의미를 생성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설 텍스트의 의미분석 모형과 의미확장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을 기초로 소설 텍스트에 표현된 복식 및 복식 행동이 나타내는 기본의미 및 확장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소설 텍스트 분석모형을 『혼불』 텍스트에 적용한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III. 『혼불』 텍스트에 나타난 복식의 의미분석

분석을 위한 자료 제시 방법과 표기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의미.

{ }: 복식이나 복식관련 언어형식.

>: 텍스트에서 인지할 수 있는 의미로 변화되는 과정.

고딕체: 복식 및 복식행동.

필기체: 복식관련 언어형식.

(≡) or (→): 복식과 의미의 관계 (등치관계 또는 확장단계).

기본의미: 모든 상황에서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의미(사전에서의 첫 번째 의미).

확장의미: 주어진 텍스트에서 다양한 요소에 의해 인지할 수 있는 특정의미.

다음은 『혼불』 텍스트 속에서 복식관련 표현이 어떠한 심리적 의미를 획득하며, 어떠한 특정의미로 확장되기를 보여주는 예이다.

1. 감성적의미

복식은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과 밀접한 관계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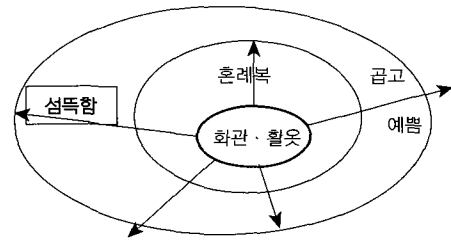
는데, 그것은 곧 착용자 및 관찰자의 심리적, 정신적 작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텍스트로부터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의미가 감성적 의미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 강모는 다만 아까부터 까닭을 알 수 없는 심정에 짓눌리어..... 눈이 부시게 찬연한 오색 구슬로 덮인 화관이며, 다홍의 활옷, 그 활옷에 수 놓여진 길상의 문양들이 커다란 소매의 푸르고 붉고 노란 색동과 더불어 오직 마음을 어지럽게 할 뿐, 굵다든지 여여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눈부시게 현란하여 울긋불긋 빛나는 색깔들이 덜컥하는 소리를 내며 가슴에 부딪혀 왔었다. 섬뜩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1권:30)

자료 (1)은 혼례용 복식과 관련된 텍스트이다. 곧, {눈이 부시게 찬연한 오색 구슬로 덮인 화관/ 다홍의 활옷/ 활옷에 수 놓여진 길상의 문양들이 커다란 소매의 푸르고 붉고 노란 색동}은 [여러 가지 색으로 화사하게 장식된 혼례복]이라는 기본의미를 지시한다. 그러나 작가가 {오직 마음을 어지럽게 할 뿐, 굵다든지 여여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눈부시게 현란하여 울긋불긋 빛나는 색깔들이 덜컥하는 소리를 내며 가슴에 부딪혀 왔었다}, {섬뜩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언어 형식을 전후의 맥락으로 사용하여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심리적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텍스트에서의 신부복인 화관과 활옷은 [혼례복]이라는 1차적의미로부터 [신랑을 섬뜩하게 하는 신부복]이라는 확장적 심리의미로 생성되고 있다. 이 과정을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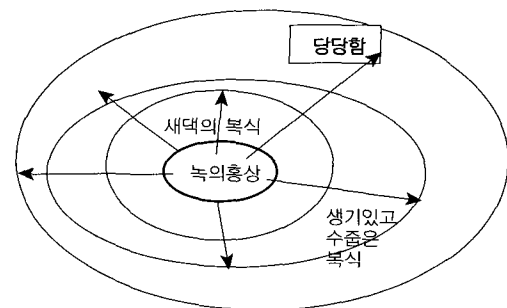
(1) {눈이 부시게 찬연한 오색 구슬로 덮인 화관/ 다홍의 활옷/ 활옷에 수 놓여진 길상의 문양들이 커다란 소매의 푸르고 붉고 노란 색동} ≡ [여러 가지 색으로 화사하게 장식된 혼례복] > {눈이 부시게 찬연한 오색 구슬로 덮인 화관/ 다홍의 활옷/ 활옷에 수 놓여진 길상의 문양들이 커다란 소매의 푸르고 붉고 노란 색동} + {오직 마음을 어지럽게 할 뿐, 굵다든지 여여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 {그 눈부시게 현란하여 울긋불긋 빛나는 색깔들이 덜컥하는 소리를 내며 가슴에 부딪혀 왔었다} + {섬뜩 무서운

운 마음이 들었다} → [신랑의 마음을 어지럽고 섬뜩하게 하는 신부복]



(2) 녹의홍상이라는 것이 본디 생기있는 복색이면서도 수줍고, 그러면서도 당당한 빛깔이라는 것을..... 청암부인은 눈이 부시게 느꼈다. 그네 자신이 시택으로 올 때, 가마 속에 허연 소복을 입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기에, 놀라 소리를 지르던 농가의 아낙 생각이 새삼스럽게 떠오름도 그 빛깔이 눈부신 탓이었다. (2권:249)

자료 (2)에서 복식 {녹의홍상}은 일반적인 [새택의 복식]이다. 그러나 작가는 독자에게 {생기있는 복색이면서도 수줍고}라는 언어형식과, 청암부인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당당한 빛깔]이라는 언어형식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새색시의 복식이 [생기있고 수줍은 복식]이라는 기본의미에서 확장되어 [당당한 복식]이라는 특정의미를 생성하도록 한다. 곧, 청암 부인은 자신이 신행시 남편이 죽어서 {허연 소복}을 입고 신행길에 나섰기 때문에 [부러운 마음]으로 새색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작가가 이와 같은 청암 부인의 심리적 상태를 복식표현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 {녹의홍상} = [신부의 복식] > {녹의홍상} + {생기있는 복색이면서도 수줍고} + {당당한 빗발} → [생기있고 수줍은 복식] → [당당한 새색시의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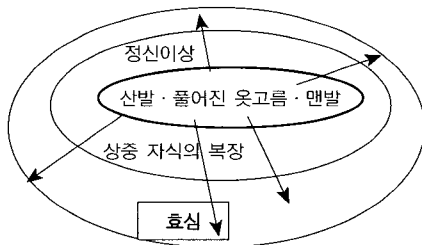
(1)과(2)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식은 모두 [혼례복]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복식을 심리를 표현하는 언어 형식과 함께 제시하여 복식 착용자와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 즉,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하고 있다.

(3) 머리는 흩어져 산발이 되고, 옷고름은 다 풀어져서 양 가슴이 드러난 채, 신발조차 챙겨 신지 못하여 맨발로 땅을 구르며 뒹굴어 애곡하던 옛사람의 효심을.....

(3권:184)

자료 (3)에서 {머리는 흩어져 산발이 되고}, {옷고름은 다 풀어져서}, {신발조차 챙겨 신지 못하여 맨발}과 같은 복식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은 복식 행동]이거나 [상중 자식의 복장]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본 텍스트에서 작가는 {애곡하던 옛사람의 효심}이라는 언어 형식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복식 행동을 하는 등장 인물의 심리 상태 즉, [효심이 담긴 복식 행동]이라는 의미로 확장시키고 있다. 본 텍스트로부터 부모 상을 당한 자식의 복식행동 문화를 인지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 {머리는 흩어져 산발이 되고/ 옷고름은 다 풀어져서/ 신발조차 챙겨 신지 못하여 맨발} ≡ [정상적이지 않은 복식 행동] > {머리는 흩어져 산발이 되고/ 옷고름은 다 풀어져서/ 신발조차 챙겨 신지 못하여 맨발} + {애곡하던 옛사람의 효심} → [효심이 담긴 복식 행동]



(4) ㄱ. 최는 상복의 앞가슴에 달린 배 조각인데 부모를 잃은 효자가 비애를 억누르는 뜻이 있는 것으로 눈물

받이라고도 하며, 부판은 뒤에 붙이는 배 조각으로 비애를 등에 짊어진 것을 나타내는데 (3권:196)

ㄴ. 옷깃이 없고 소매가 넓은 저고리 대수장군의 긴허리 아래로 좌우에 달린 세폭의 삼베 자락이 뒤에 드리운 여섯 폭 자락을 데불고 슬픔을 달래는데 등을 덮은 부판은 바람에 뒤집히며, 업은 비애를 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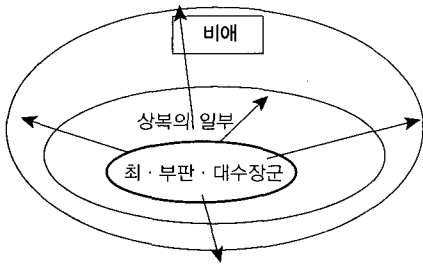
(3권:205)

자료 (4 ㄱ)에서 {최}는 참최와 재최 등 상복 저고리의 앞가슴에 달린 배 조각이고, {부판}은 상복 뒤에 붙이는 배 조각으로서 각각 [상복의 일부]이다. 전통적인 상례법³⁾에서 {최}에는 [슬픔을 억누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부판}에는 [슬픔과 서러움을 짊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작가가 이와 같은 의미를 활용하여 {비애를 억누르는}과 {비애를 등에 짊어진 것}이라는 언어 형식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심리적인 요인이 복식에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 (4 ㄴ)에 쓰인 복식은 {대수장군}과 {부판}이다. {대수장군}은 [옷깃이 없고 소매가 넓은 저고리로 된 여자 상복]이고, {부판}은 [상복 뒤에 붙이는 배 조각]이다. 그러나 작가가 심리적 요인을 반영한 {슬픔을 달래는데}와 {비애를 때린다}라는 언어 형식을 사용하여 [슬픔을 나타내는 복식]이라는 심리적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즉, 한국 문화권에서 상을 당한 사람의 심리를 복식표현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 ㄱ. {최/ 부판} ≡ [참최와 재최 등 상복 저고리(최의)의 앞가슴과 뒤에 달린 배 조각] > {최/ 부판} + {비애를 억누르는/ 비애를 등에 짊어진 것} → [비애를 나타내는 상복의 일부]

ㄴ. {대수장군} ≡ [옷깃이 없고 소매가 넓은 저고리로 된 여자 상복] + {부판} ≡ [상복 뒤에 붙이는 배 조각] > {대수장군/ 부판} + {슬픔을 달래는데/ 비애를 때린다} → [슬픔을 나타내는 상복의 일부]

3) 김용덕(1991, 1993, 1994), 김춘동(1990), 유지현 · 한명숙(1997), 장철수(1980, 1984), 전라북도(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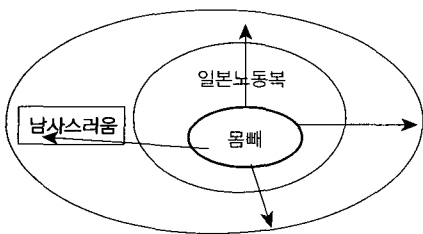


(3)과(4)에서는 [상복]과 관련된 의미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상복의 착장 상태와 상복에 붙은 디테일로부터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5) 속곳 고쟁이 같은 몸뻘을 입은 채 마을로 들어오는 읍내 아낙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그는, 복장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의를 해야 하였겠지만, 하도 어처구니 없어 오히려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던 것이다. (5:129)

자료 (5)에 제시된 {몸뻘}은 [일본 노동복]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몸뻘}을 {속곳/ 고쟁이}와 비슷한 것으로 표현하고, {하도 어처구니없어 오히려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던 것이다}라는 언어 형식을 사용하여 [남사스러운 복식]으로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의미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로부터 그 당시는 몸뻘라는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문화를 읽을 수가 있다. 이 과정을 형식화하면 (5)'와 같다.

(5)' {몸뻘} ≡ [일본 노동복/ 속곳 고쟁이같은 옷] > {몸뻘} + {하도 어처구니없어 오히려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던 것이다} → [남사스러운복식]



2. 인성적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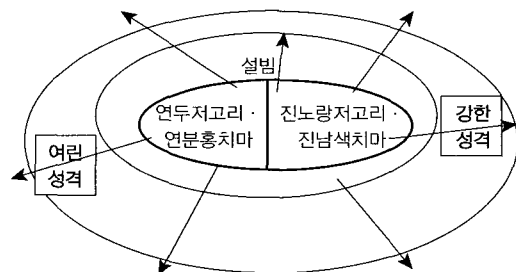
복식 및 복장 상태는 착용자의 성격이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설 텍스트에 묘사되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창출하기도 한다.

(6)설빔들을 떨치고 꾸며 입었는지라.....강실이는 그 일이 비치는 명주 저고리 애달픈 연두와 연분홍 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효원은 궁청 바다 밑보다 푸른 진남색 비단 치마를 드리운 위에 새각시 눈부신 진노랑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그 빛깔이나 모습은 구긴 데 감춘 데 없이 정대하고 당당하였다. (7권:15)

자료 (6)에서 {일이 비치는 명주 저고리 애달픈 연두 / 연분홍 치마}는 [강실이의 복식]이며, {궁청 바다 밑보다 푸른 진남색 비단 치마/ 눈부신 진노랑 저고리}는 [효원의 복식]이다. 이 텍스트에서 독자는 강실이의 복식과 효원의 복식에 나타난 색채로부터 그들의 인성을 추리할 수 있다. 곧 작가는 강실이의 복식에 {애달픈 연두}와 {연분홍}색을 사용하여 강실이 가 여린 성격의 소유자임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리고 {진남색}과 {진노랑}의 강한 대비를 이루는 색을 입은 효원은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일이 비치는 명주 저고리 애달픈 연두/ 연분홍 치마}는 [여린 성격을 나타내는 복식]으로 의미가 확장되며, {궁청바다 밑보다 푸른 진남색 비단 치마/ 눈부신 진노랑 저고리}는 [정대하고 당당하였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 [강한 성격을 나타내는 복식]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즉, 색은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 형식을 통해 [복식 착용자의 성격을 나타내는 복식]으로 인성적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이 과정을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6)' {일이 비치는 명주 저고리 애달픈 연두/ 연분홍 치마} ≡ [강실이의 복식] > {일이 비치는 명주 저고리 애달픈 연두/



연분홍 치마→[여린 성격을 나타내는 복식]

{궁청 바다 밑보다 푸른 진남색 비단 치마/ 눈부신 진노랑 저고리} ≡ [효원의 복식] > {궁청 바다 밑보다 푸른 진남색 비단 치마/ 눈부신 진노랑 저고리} + {정대하고 당당하였다} → [강한 성격을 나타내는 복식]

(7 ㄱ) 손을 베게 날이 선 치마 저고리를 날아가게 입고 앉
아 있던 부인..... (2권:232)

(7 ㄴ) 웃고름이이고 치마끈이이고 야물게 매지 못하는 사람
이 등촌택이었다. 맵시는 그만두고, 금방 풀어진 것만 같
은 웃고름이며 느슨한 치마끈은 한심하기까지 하였다.
“그런 걸 두고 창피하다 하는 게야.....” (7권:24)

(7 ㄷ)어머니가 기가 막힌 것은 단순히 버선짝이 쌀자
루만 하다가, 신행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새각시가
벌써부터 정신머리가 그렇게 없어 칠칠치 못하게 수
늑을 바꿔 신었다든가 하는 것보다, 이로 미루어 다른
성질과 품행을 짐작할 수 있는 점이었다. (7권:19)

자료 (7 ㄱ)에서 {치마 저고리}는 [한복의 상의와 하의]이다. 그러나 작가가 {손을 베게 날이 선}, {날아가게 입고}라는 언어 형식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착용자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독자는 이러한 {치마 저고리}로부터 [차고 범접하기 힘든 성품을 나타내는 복식]이라는 의미를 인지하게 되는 반면, 자료 (7 ㄴ)에 쓰인 {웃고름이이고 치마끈이이고 야물게 매지 못하는 사람/ 금방 풀어진 것만 같은 웃고름/ 느슨한 치마끈}이라는 복식은 [웃고름과 치마끈을 매는 복식 행동]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와 같은 복식 행동에 {한심하기까지 하였다}와 {그런 걸 두고 창피하다 하는 게야}라는 언어 형식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등촌택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텍스트에서는 이와 같은 복식과 관련된 언어 형식을 통해 [야물지 못한 성품을 나타내는 복식 행동]과 [한심하고 창피한 복식 행동]을 지시한다.

자료 (7 ㄷ)은 [버선과 관련된 여자의 복식 행동]이다. 이 텍스트에서는 작가가 {버선짝이 쌀자루만 하다가/ 칠칠치 못하게 수늑을 바꿔 신었다든가}와 같은 등장인물의 복식 행동으로부터 착용자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복식의 착용상태가 전후의 맥락의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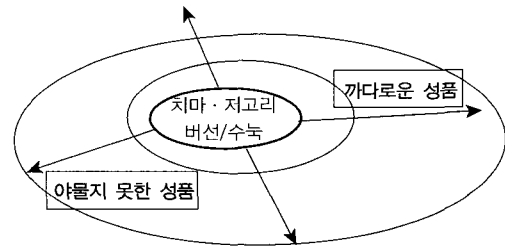
받아 보다 상세한 등장인물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형식화하면 다음 (7 ㄱ) (7 ㄴ) (7 ㄷ)과 같다.

(7 ㄱ) {치마 저고리} ≡ [한복의 상의와 하의] > {치마 저고리} + {손을 베게 날이 선/ 날아가게 입고} → [차고 범접하기 힘든 성품을 나타내는 복식]

(7 ㄴ) {금방 풀어진 것만 같은 웃고름/ 느슨한 치마끈} ≡ [웃고름과 치마끈을 매는 복식 행동] > {금방 풀어진 것만 같은 웃고름/ 느슨한 치마끈} + {야물게 매지 못하는 사람} + {한심} + {창피하다 하는 게야} → [야물지 못한 성품]

(7 ㄷ) {버선짝/수늑} ≡ [한국전통 양말] > {버선짝/수늑} + {쌀자루만 하다가} + {바꿔 신었다} → [야물지 못한 성품]



3. 주술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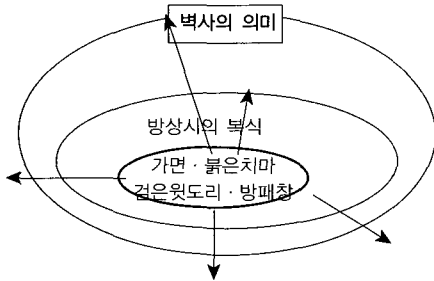
주술은 인간의 나약함을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려 의지하려는 인간의 심리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가 다음의 텍스트에서 복식 및 복식관련행동의 확장 의미로 표출되고 있다.

(8) 청암부인의 상여에는, 황금빛으로 네 누깅을 그린 가면을 쓰고 검은 윗도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모습으로, 한 손에 방패 들고 한 손에는 창을 세운 방상시(方相氏)가 앞을 섰다. 초상이 난 곳에는 흉사(凶邪)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물리치며 가게 하는 것이다. 방상시 뒤를 따르는 곡비(哭婢) 두 사람이 서럽게 목을 놓아 하는 곡이..... (3권:208)

자료 (8)에서 쓰인 {황금빛으로 네 누깅을 그린 가면/ 검은 윗도리/ 붉은 치마/ 방패/ 창}은 [방상시의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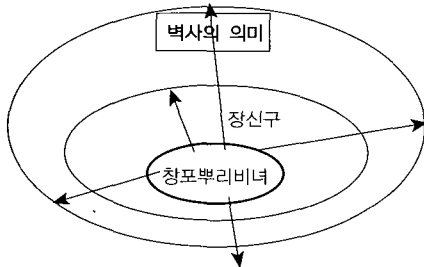
이다. 그러나 {방상시}, {초상이 난 곳에는 흉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물리치며 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언어 형식으로부터 [벽사의 복식]이라는 주술적 의미를 생성한다. 이 과정을 형식화하면 (8) 와 같다.

(8) {황금빛으로 네 누깔을 그린 가면/ 검은 윷도리/ 붉은 치마/ 방패/ 창} ≡ [방상시의 복식] > {황금빛으로 네 누깔을 그린 가면/ 검은 윷도리/ 붉은 치마/ 방패/ 창} + {방상시} + {초상이 난 곳에는 흉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물리치며 가게 하는 것이다} → [벽사의 복식]



(9)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흥건히 적서어 감아내던.....
"자, 강실아, 이리 오나라." 오류골택은 창포 뿌리 깎은 비녀 끝에 새빨간 주사를 꼭 찍어 강실이 귀밑에다 곱게 꽃아 주고는, 기용의 상투에도 아담하게 꽃아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 흰뿌리 창포 비녀를 자신의 낭자머리 둥그란 쪽에도 꽃았는데. (7권:194)

자료 (9)에서 {비녀}는 [여자의 머리 장신구]이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서 독자는 {창포 뿌리 깎은 비녀}를 {끝에 새빨간 주사를 꼭 찍어 강실이 귀밑에다 곱게 꽃아 주고는}이라는 언어 형식을 통해 [벽사의 의미를 지니는 장신구]라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이 과정을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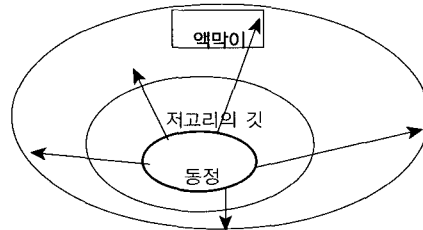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9) {비녀} ≡ [여자의 머리 장신구] > {창포 뿌리 깎은 비녀} + {끝에 새빨간 주사를 꼭 찍어 강실이의 귀밑에다 곱게 꽃아 주고는} → [벽사의 의미를 지니는 장신구]

(10) 한쪽에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내아이들은 지난 겨울과 정초에 날렸던 아까운 연들을 모두 불 속에 집어넣어 태우고, 계집아이들은 제 저고리에 달린 동정을 뜯어 달집에 던져 넣었다. (5권:55)

자료 (10)에서는 {계집아이들은 제 저고리에 달린 동정을 뜯어 달집에 던져 넣었다}라는 복식 행동이 나타나 있다. 이 텍스트에서 이러한 복식 행동은 {사내아이들은 지난 겨울과 정초에 날렸던 아까운 연들을 모두 불 속에 집어넣어 태우고}와 같은 언어 형식과 함께 제시됨으로써, 전통적으로 행하던 한 해의 나쁘고 해로운 일들을 없애 버리려는 주술적 의미를 추리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계집아이들이 제 동정을 뜯어 달집에 던지는 복식 행동]으로부터 [묵은 액을 태우는 복식 행동]이라는 주술적 의미로의 확장을 인지할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복식 행동의 주술적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또 다른 주술 행위인 {사내아이들은..... 넣어 태우고}라는 언어 형식을 제시하였다. 곧, 작가는 독자로 하여금 [묵은 액을 태우고자 하는 주술적 복식 행동]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한다. 이 과정을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0) {계집아이들은 제 저고리에 달린 동정을 뜯어 달집에 던져 넣었다} ≡ [계집아이들이 제 동정을 뜯어 달집에 던지는 복식 행동] > {계집아이들은 제 저고리에 달린 동정을 뜯어 달집에 던져 넣었다} + {사내아이들은 지난 겨울과



정초에 날렸던 아까운 연들을 모두 불 속에 집어넣어 태우고}→[묵은 액을 태우고자 하는 주술적 복식 행동]

이상의 텍스트 분석으로부터 복식 및 복식행동이 특정 맥락 또는 상황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다양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불』 텍스트에서는 심리적 의미 중에서 복식이 등장인물의 감정을 나타내는 유형이 가장 많았고(50%), 다음은 복식 착용자의 성격을 나타내는 유형(40%), 그리고 그밖에 주술적 의미(10%)를 생성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다.

IV. 분석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복식문화의 의미를 분석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복식표현으로부터 인지할 수 있는 심리적 의미를 감성적 의미, 인성적 의미, 주술적 의미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감성적 의미: 1) 혼례복인 화관·활옷의 길상문양과 커다란 색동 소매로부터는 어지럽고 섬뜩함을, 녹의홍상으로부터는 당당함 등과 같은 감성적 의미를 인지할 수 있었다. 본 텍스트에서 작가는 혼례복으로부터 아름다움, 화려함, 우아함과 같은 긍정적 감정보다는 위와같은 부정적 감정을 생성시킴으로서 혼례시 등장인물의 부정적 심리를 복식 및 복식행동으로 의미전달하고 있었다.

2) 상례복인 최·부판으로부터는 비애를, 대수장군에 붙은 삼베자락으로부터는 슬픔을, 산발·풀어진 옷고름·맨발로부터는 효심 등과 같은 의미를 지시함으로써 상례로부터 느낄 수 있는 기존적 의미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확장된 감성적 의미를 인지할 수 있었다.

3) 몸빼라는 복식으로부터는 어처구니없고 민망함의 의미로 확장되는 등 복식표현으로부터 다양한 감성적 의미를 인지할 수 있었다.

2. 인성적 의미: 1) 연두색 명주 저고리·연분홍치마로부터는 착용자가 여린 성격의 소유자임을, 진남색 비단 치마, 진노랑 저고리로부터는 착용자의 성격이 강인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2) 치마·저고리의 착용상태로부터 차고 범접하기 힘든 성품을, 금방 풀어질 것 만 같은 옷고름·느슨한 치마끈으로부터는 아물지 못한 성품을 인지할 수 있었다. 즉, 복식 소재와 색상 그리고 착용상태의 표현으로부터 등장인물의 인성, 즉 여리고 강한 대조적 성격을, 냉정한 성품, 칠칠치 못하고 아물지 못한 성품, 정숙치 못한 성품 등을 인지할 수 있었다.

3. 주술적 의미: 1) 방상시의 복식, 2) 창포뿌리 비녀에 주사를 묻혀 꽂는 행위, 3) 저고리의 동정을 달집에 던지는 정월 대보름의 복식관련 풍속으로부터 흉사를 막는 벽사 및 액막이의 의미를 인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복식의 색상, 소재 및 복식행동으로부터 우리 고유의 주술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었던 점이 본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실물의 복식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 외에 『혼불』 텍스트에서만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특정의미를 생성하고 있었다. 동일한 복식 및 복식행동이 저자가 제시하는 언어적 맥락 즉, 텍스트의 전·후 상황에 따라 1차적 의미로 제시되기도 하고, 때로는 2차적, 3차적 의미로 연쇄 확장되기도 하여, 각기 다른 특정의 의미를 생성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소설 텍스트상의 복식문화 코드를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미영, 2000, 여성잡지에 나타난 속옷광고의 의미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용덕, 1991, 한국민속대사전, 서울: 민족문화사.
 _____, 1993, 한국민속학의 이해, 서울: 문학아카데미.
 김춘동, 1970, 한국문화사대계4: 한국예속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김희선, 1994, "Pearl S. Buck 소설의 복식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나수임, 1995, "의류 광고의 기호학적 의미 분석",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출세, 1990, "한국 서사문학에 나타난 통과 의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지현 · 한명숙, 1997, 소설 <혼불>에 나타난 통과 의례와 복식분석(I), 복식문화연구 5(2), 복식문화연구, 169-180.
- 유지현, 1998, <혼불>에 나타난 복식의 의미분석,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점순, 1997, "중세와 근세 복식의 구조적 분석",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화, 2001, 아동복 광고의 구조분석-잡지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유경, 1993, "Charles Dickens 소설에 나타난 복식 상징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철수, 1980, 한국민속대관 I,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_____, 1984,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서울: 고려원.
- 정원윤, 1993, "춘향전에 나타난 인물의 복식 형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현숙, 1992,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나타난 복식 역할의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명숙, 1987, "한국 복식 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범, 1992, "문학 작품에 나타난 여성상과 복식에 관한 연구-일제 식민기의 염상섭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thes, R. 1967, *Système de la Mode*, Édition du Seuil.
- Darmesteter, A. 1946. *La Vie mdes émotis tudiee dans leuss significations*.
- Lurie, A. 1983, *The Language of Clothes*. New York: Vintage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 Petr Bogatyrev, 1981, *Costume as a Sign, From the Functions of Folk Costume in Moravian Slovakia*, Mouton, The Hague and Paris, pp. 80-85.
- Robert de Beaugrande & Wolfgang Dressler, 김태옥 · 안현호 공역(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서울: 한신문화사, p. x - xi.
- 横川公子 外. (1992). 「服飾表現의 位相」. 東京: 昭和堂. (1998), 한명숙 · 이민경 역, 서울: 경춘사. p. 24.